

잡지편집에서의 디자인과 사진

제3회 편집디자인 세미나 지상중계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회장 김학성)가 주최한 제3회 KOGDA 편집디자인 세미나가 지난 7월 4일과 5일 양일간 경기도 이천 미란타호텔에서 열렸다.

‘사진과 편집디자인’이란 주제로 김승곤(사진평론가), 김남호(상명여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정근원(서강대 커뮤니케이션센터 수석연구원), 강운구(사진작가, 샘이깊은물 포토디렉터)씨가 주제발표자로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대 정보사회의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부상한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편집디자인에 있어 사진편집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다음에 김남호, 강운구씨의 발표내용을 발췌·요약한다.

아트디렉터가 갖고 있는 몇가지 원칙

김남호——사진가와 아트디렉터의 상호협력은 편집디자인에 있어 필연적인 공생의 관계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트디렉터는 사진가의 창조적 자유를 유발시키는 반면 그 역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지면에 실릴 사진이 사진가 혹은 편집자에 의해 이미 그 적격여부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아트디렉터가 이처럼 사진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진이 글의 편집과 동일한 사고과정과 편집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급변하는 시각감흥도 아트디렉터의 사진선정을 더욱 어렵게 해 어떤 표준이나 논리를 고수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아트디렉터는 편집디자인을 위한 사진을 취사선택하는데 있어 몇가지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사진이 편집상의 메시지에 적절한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아트디렉터는 편집아이디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독자에 대해 그 아이디어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진의 신뢰도와 신빙도를 고려한다. 내용이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혹은 완벽할 정도로 정직해 오히려 사진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 사진의 디자인적 가치, 즉 구도, 톤의 처리, 질감 등에 관심을 둔다. 넷째, 편집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이 단순히 사진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최종적으로 사진들과의 상호관계와 완성된 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트디렉터의 궁극적인 어려움은 사진에 대한 편견없는 판

단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트디렉터는 사진작가의 눈을 통해 사진이 지면에서 독자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원한다. 첫째, 주의를 끄는 사진을 원한다. 사진은 기사의 머릿글처럼 독자의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매체다. 머릿글은 가능한 생생하고 흥미있게 쓰여지는데, 사진도 마찬가지다. 아트디렉터는 사진에 흥미를 주기 위해서 사진 안에 주의를 끄는 요소가 있는 사진을 원한다. 주의를 끄는 사진에는 글에서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설명적인 사진도 필요하다. “하나의 사진이 단어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처럼, 자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과 같은 사진 역시 아트디렉터에게는 소중한 매체다. 간혹 설명적인 사진은 평범하고, 상상력이 부족하고, 무미건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셋째, 상징적 사진을 원한다. 아트디렉터는 사진의 명백성이 갖는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사진재료에 더 많은 상징을 사용한 사진을 원한다. 상징성이 있는 사진은 그 이미지에 동반된 글과 함께 증폭된 이미지로 독자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트디렉터는 이러한 몇가지 기준에 따라 사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선택한 사진을 일부분 잘라내기도 한다. 아트디렉터는 독자가 인식해주시기를 원하는 사진의 요소 속에 독자의 주의를 모아지게 함으로써 사진의 요점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의미를 혼란시킬 여지가 있는 배경이 되는 부분을 잘라내어 편집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고자 한다.

사진과 편집디자인의 진정한 만남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출판물의 전성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길지 않은 세월을 통해 사진작가와 아트디렉터는 많은 시간을 스튜디오에서 혹은 라이브박스를 들여다보며, 디자인과 사진이라는 두가지 위협스러운 힘이 충돌함에 따라 생기는 불협화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가지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사진과 편집디자인, 그 갈등과 화해의 공존

강운구——오랫동안 잡지저널리즘에 종사하며 느낀 가장 큰 불만은 디자이너와 아트디렉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잡지사간의 문제와 연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난 4일과 5일 경기도 이천 미란타 호텔에서 개최됐던 제3회 편집디자인 세미나.

잡지계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기능해볼 수 있다.

우선 사진기자는 기록성으로부터 도피한 예술지향의 주관적 사진이 아닌, 리얼리즘에 입각한 객관적 사진을 찍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현실은 열악하다. 단적인 예로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자면, 20여년간 사진현장에 있으면서 단 한번도 5일 이상 취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잡지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라이프」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에도 「타임」이나 「뉴스위크」誌 같은 잡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언더그라운드 잡지가 있으며, 잡지에 아트디렉트 시스템이 정착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아트디렉터는 사진을 선택하고 트리밍하며 배열, 색깔, 형태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진기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트디렉터의 역할이 강력하고, 창의력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진기자가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아트디렉터는 없다는 사실이다.

사진기자가 어부라면 아트디렉터는 요리사로서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래픽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아트디렉션을 필요하지만, 반대로 보도사진인 경우에는 사실 아트디렉션을 역할이 별로 의미가 없다. 기사(글)와 사진은 기명되지만 아트디렉터는 기명이 안된다는 점도 아트디렉션을 상정해준다. 아트디렉션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잡지미술계의 현실적인 문제점들

을 몇가지 지적해보면 첫째, 종사자들 대부분을 젊은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들의 특성은 지나치게 시각적 효과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성격에 따라 편집디자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포토디렉터(사진부장)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직무유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포토디렉터의 역할은 대부분 단순히 사진을 선택해 미술부로 넘겨주는 선에 머물고 있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잡지가 절대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광고는 왕이기 때문에 편집디자인의 영역이 축소되거나 위축돼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미술기자와 사진기자가 편집기자와 소원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신문사나 잡지에서 제작부는 편집부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극복방법은 미술부나 사진부가 편집부와 지적수준에서 동등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술기자가 사진기자가 되기 전에 저널리스트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편집기자와 저널리스트적 시각을 공유하게 된다면, 미술기자·사진기자·편집기자의 ‘화해로운 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런 바람은 우리 세대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정소연 기자